

# 在外韓人 작품, 어떤 것이 나왔나

## 在일본·소련·延邊작가 작품 출간현황을 총점검한다

80년대를 특징짓는 징후군 가운데 하나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여러 부문에 걸쳐 허물어 졌다는 점이다. 국내의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열기와 냉전체제의 범세계적인 와해분위가 어우러짐으로써 가능했던 이런 현상은, 출판계에는 「자본론」과 북한원전의 출간을 통해 극명하게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권위적인 통치체제가 강요했던 이념의 '편식'으로부터 벗어나 균형감각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이 출판계의 한 흐름을 이루면서, 부분적으로는 '좌파 상업주의'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는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이데올로기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된 채로 방치되었던 '폐선'으로부터 많은 유물을 건져 올릴 수 있었다. 이 발굴작업을 통해 얻은 값진 유물목록에는 제외한인 작가들의 작품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그동안 김용익·김은국·이미륵·강용홀 등의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포작가들의 작품집은 '별 탈 없이' 소개되었지만, 일부작가들은 이념과 정치적 전망의 상이성을 이유로 유예처분을 받아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따라서 80년대의 한국사회가 갖는 남다른 역동성을 지렛대로 삼아 제일본·중국·소련 등의 한인작품이 활발히 소개된 것은 우리 문학사의 지층을 한층 두텁게 하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반가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치성이 강한 재일동포문학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제외한인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정리해 보면, 민족적 현실에 정열적으로 천착하고 있는 작품과, 작가가 거주하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주조음으로 하는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민족의 당면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작품군은 우리사회의 변혁운동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는 작품과 통치이데올로기의 편향성에 의해 역사의 행간에 파묻혔던 객관적 사실을 복원시키고 있는 작품으로 세분되고 있다.

이념의 '시장성'을 보장, 좌우이데올로기의 병존이 가능한 재일작가들이 경우에는 작가의 계급적 당파성이 강하게 배어 있는 작품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회성의 「금단의땅」은 70년대에 찍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뛰어난 정치적 상상력에 힘입어 80년대 후반 우리 사회에 쟁점이 되고 있는 변혁논리를 '선취'하고 있어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작품. 4·1

9라는 미완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토착적 사회주의'가 가장 적합한 변혁이론이라고 주장,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뒤쫓고 있는 집단과 사상투쟁을 벌이며 '전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박진감 있게 그려져 있다. "우리는 '반제' 투쟁과 병행하면서 '반독점'으로서의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고 이의 과정으로서 '민주주의'혁명을 추진한다"는 작중 인물의 주장은 80년대 후반에 비로소 이론적 작업이 정초된 소위 PD(반주사)의 변혁논리와 동질적인 것이다.

해방전후의 정치적 혼란기에 망명을 목적으로 이주한 세대이거나 가족사적 맥락에서 그 고통을 나누어 질 수밖에 없던 2세들에 의해 해방공간의 역사적 비극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재일작가들의 특색이다. 제주도에서 빛어진 살륙의 현장을 떠나지 않는 김석범은 「까마귀의 죽음」 「화산도」 등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되었던 4·3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였고 국내에서도 일기 시작한 4·3재평가 작업의 든든한 원군이 되었다.

이은직의 「탁류」는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서의 미국의 세계전략과 자주적 민주국가 건설하려는 민족세력이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10월폭동'을 분단구조를 거부하는 반미항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해방기의 역사적 사실을 재평가하는 작가로 김달수를 빼놓을 수 없다. 「태백산맥」은 해방부터 10월폭동까지의 기간에 걸친 혼란기를,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들을 삼입하면서, 외세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시각 속에서 그리고 있다.

재일한인 작가 가운데 유일하게 소개된 서사시는 허남기의 「화승총의 노래」. 동학혁명에서부터 3·1운동을 비롯한 항일투쟁과 해방 후 미군정 치하의 정치적 격변기, 그리고 응축된 모순이 폭발적으로 터진 '10월폭동'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반봉건·반외세 투쟁사를 격렬하게 노래하고 있다.

확고한 정치적 신념에 기초한 민족문제에의 접근이 재일작가들의 일반적 경향인 것에 반해,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작가 특유의 감수성으로 포착하고 있는 이양지의 작품세계는 가장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작가의 대표작 「유회」는 재일동포가 모국에서 겪게 되는 이방 의식을 그리고 있는 작품. 오늘의 한국사회가 재일동포를 한국화시키기에는 이미 지나치게 일본화되었다는 역설적 사실을 '일본화된 한국



이회성



이양지



김성휘



김파

인'의 시각으로 조명, 우리의 중산층의식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 민족정서의 寶庫 연변문학

연변한인 문학을 논함에 있어 우선 그들이 소수민족으로서의 역경을 이겨내면서 언어를 비롯한 수다한 민족생활사를 면면히 보존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실제로 '문화혁명' 당시 소수민족의 문화는 "조국을 배반하고 수정주의에 투항하려는 것"으로 일축되어 많은 조선족 문인들이 옥고를 치르는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연변한인 작가를 대표하는 소설가는 김학철이다. 그의 대표작 「격정시대」는 일제시대 한 소년이 역사의 현장에서 성장하며 민족과 계급에 대한 과학적 의식이 싹터 마침내 항일 무장투쟁의 전사로 나서게 되는 과정을 그린 '혁명성장소설'이다. 특히 이 작품이 갖는 역사적 가치는 작가 자신이 그 일원으로 직접 참가한 조선의용군에 관한 육성증언이라는 점이다. 조선의용군에 대한 평가는 남북 모두에게 확대시되었는데, 남쪽은 상해 임정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선의용군을 항일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의 빨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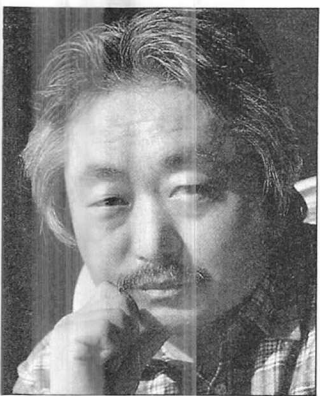
활동을 강조하기 위해 그 의미를 축소해왔다. 따라서 장지락의 일대기를 그린 「아리랑」과 더불어 이 작품은 중국대륙에서 펼쳐진 항일투쟁을 역사에 당당히 복원시키고 있다.

항일투쟁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으로는 이밖에 이근전의 「고난의 연대」가 있다. 1900년부터 1945년까지에 걸쳐 만주지역에서 벌어진 우리민족의 항일투쟁사를 그 발전과정에 맞춰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항일가족과 친일가족의 대를 잇는 투쟁을 그리는 '가족사적 혁명소설'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의 천안문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 중국의 사회주의는 두 개의 대립적 노선의 갈등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인 계급 투쟁으로 부르주아 의식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노선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생산력 증대의 선행적 달성을 주장하는 수정주의 노선이다. 연변의 조선자치구도 엄연히 중국 공산당 지도노선의 갈등이 현시화되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연변의 소설에는 이러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어 중국의 체제적 갈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류원무의 「봄물」 「일어서는 풀」,



김학철



아나폴리 김

리태수의 「춘삼월」, 소설선「그녀는 고향에 다녀 왔다」 등은 사회주의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낙후된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중국의 고민이 조선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

서구적 감수성과 기교의 침략(?)을 받지 않은 연변의 서정문학은 우리 언어의 참맛을 싱싱하게 보존하고 있는 '냉장고'이다. 김파·박화·김철·김성희 등의 개인시집과 많은 앤솔러지에 대해 신동욱 교수는 "실로 아름다운 생활서정이 수 놓여져 있고, 한국인의 실제적인 생활의 기쁨과 미적 인식이 순정한 상태로 드러나 있다"고 평가했다. 그밖에 봉건사회 말기의 농민봉기를 배경으로 한 김철의 「세별전」, 조·한 두민족이 연합하여 구성한 유격대가 장백산을 무대로 펼치는 항일투쟁을 노래한 「장백산아 이야기하라」 등의 장편서사시가 출간되었다.

**凍土에 싹튼 한국魂**

일본이나 중국의 교포문학에 비해 상대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련 교포문학의 현황은 일단 그 책임의 소재를 스탈린의 철권 정치에 돌릴 수 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이후 20년 넘게 우리말 사용과 교육이 금지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힘입어 재소작가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글로 씌어진 2편의 작품이 국내에 선보였다. 「소련식으로 우는 한인아이들」은 유일한 한글신문인 「레닌기치」에 수록된 동포들의 시를 편자가 선별하여 엮은 것으로 진솔한 표현을 통해 민족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김세일씨의 「홍범도」는 항일무장투쟁사에 있어 신화적인 인물인 홍범도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전기소설. 홍범도장군의 자전적인 일기와 동료들의 회상기, 관련자료들의 엄격한 취사선택을 통해 씌어진 이 소설은, 異說이 구구한 우리 학계의 홍범도연구에 좋은 나침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어로 활약하는 한인작가로서 소련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는 국내에도 이미 「푸른섬」 「사할린의 방랑자들」 「연꽃」 등이 소개되어 낮은 아나폴리 김. 사할린 동포들이 겪어야 했던 한맺힌 고통의 세월을 문학적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김은, 그 특수한 경험을 동양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회화적 묘사력으로 그리고 있어 많은 소련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우리민족 고유의 민간전승이나 신화·전설을 작품에 반영하여 운명의 주어짐에 대한 인간정신의 갈등과 긴장을 그리고 있어 체홉과 부닌으로 이어지는 러시아 단편문학의 전통을 한국적 혼으로 포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평가이다.

**객관적인 비평작업 아쉬워**

경직된 이념의 빙장을 열고 활발히 소개된 재외한인 작가들의 작품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민족의 현실이나 존재의 내면풍경을 묘사, 이러한 주제를 다각적으로 살필 수 있는 '망루'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 대해 '혈연적 유대감'만을 강조하는 감정적 바탕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인 미학적 기준에 근거한 비평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총체적인 민족문학의 복원을 위한 기초작업이 부실한 상태이다. 또한 국내 독자로서는 재외한인들의 작품을 세심한 독법으로 투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성숙한 안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학평론가 임현영씨는 "그간 방치되어왔던 민족문학의 소중한 자산을 우리 문학사로 접목

**□ 在外韓人 작가 작품집 출간현황**

국가	구분	작 품 명	작 가	출 판 사	간행 년도	비고	
일본	소설	내 의	이 양 지	삼 신 각	1986		
		나비타령	"	"	1989		
		由熙	"	"	"		
		犬子	김 봉 응	소설문학사	1987		
		탁류	이 은 직	풀 빛	1988	전3권	
		까마귀의 죽음	김 석 범	소 나 무	"		
		화산도	"	실천문학사	"	전5권	
		금단의 땅	이 회 성	미 래 사	"	전3권	
		태백산맥	김 달 수	연 구 사	"	전2권	
		박달의 재판	"	"	1989		
시	회승종의 노래	허 남 기	동광출판사	1988			
중국	소설	그녀는 고향에 다녀 왔다	김 학 외	슬 기	1987		
		춘삼월	리 태 수	"	1988		
		일송정 푸른 솔은	강 치 생 외	삼 민 사	"		
		격정시대	김 학 철	풀 빛	"	전3권	
		해란강아 말하라	"	"	"	전2권	
		고난의 년대	이 은 전	세 계	"	전4권	
		봄물	류 원 무	동광출판사	1989	전2권	
		일어서는 풀	"	토 지	"	전2권	
		포효하는 목단강	윤 일 산	"	"		
		새신랑	박 선 석 외	한 그 루	"		
		깃뻏힌 뉘	임 원 춘	동광출판사	"		
		어머니의 비밀	김 훈	"	"		
		나는 조선민족이다	김학철외	한 울 립	"		
		시	고향은 언제나 내 가슴 속에	신 동 옥 편	정음문화사	1987	
		흰돛	김 파	한 길 사	"		
		해란강의 두견새	이 옥 외	용성출판사	1988		
		변강산천의 민들레	김 동 호 외	"	"		
		북간도의 아침이슬	한 춘 외	"	"		
동틀 무렵	김 철	동광출판사	"				
사랑이여 너는 무엇이길래	김 성 휘	정음문화사	1989				
흰옷 입은 사람아	"	"	"				
장백산아 이야기하라	"	동광출판사	"				
나그네 길	박 화	종로서적	"				
새별전	김 철	을 지 서 적	"	전2권			
소련	소설	푸른섬	아나폴리김	정 음 사	1987		
		연꽃	"	한 마 당	1988		
		사할린의 방랑자들	"	소 나 무	"		
		홍범도	김 세 일	신 학 문 사	1989	전3권	
		시	소련식으로 우는 한인아이들	김연수편	주 류	1988	

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면서, 정치성이 강한 작품들의 경우 "재외작가들이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시각 속에서 분단된 민족의 비극을 형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고통의 현장으로부터 일정하게 비켜선 피상적이고 국외자적인 안일함은 비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권우 기자